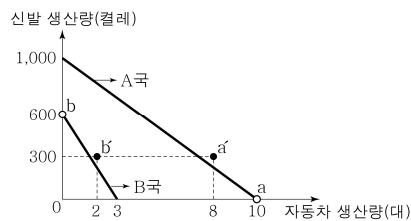


[20~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두 나라가 자발적으로 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두 나라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만일 무역 당사국이 이익을 전혀 얻지 못하거나 손실을 본다면, 이 나라는 무역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무역을 통해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또 무역에서 수출입 재화는 각각 어떻게 결정될까?

A국과 B국에서 자동차와 신발을 생산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자. 아래 <그림>과 같이 A국은 이용 가능한 생산요소*를 모두 투입하여 최대 자동차 10대 혹은 신발 1,000켤레를 만들 수 있다. 한편, B국에서는 동일한 조건하에 자동차 3대 또는 신발 600켤레를 생산할 수 있다.



이때 국가 간 비교 우위 산업의 차이에 의해서 무역의 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비교 우위란 어떤 재화 생산의 기회비용이 다른 나라보다 작은 경우를 의미

하며, 이때 기회비용이란 그 재화 생산으로 인해 포기해야 하는 다른 재화의 가치를 말한다. 위의 상황에서 A국이 자동차를 1대 더 생산하기 위해서는 신발 생산을 100켤레 줄여야 한다. 즉, A국 입장에서 자동차 1대 생산의 기회비용은 신발 100켤레와 같다. 한편, B국은 자동차 1대 생산의 기회비용이 신발 200켤레가 된다. 이 경우 A국의 자동차 생산의 기회비용이 B국의 그것보다 작으므로, A국이 자동차 생산에 있어 비교 우위를 갖고 있다. 반면, ㉠ B국은 신발 생산에 있어 비교 우위를 갖게 된다.

따라서 A국이 자동차를 특화해 B국에 수출하고, B국은 신발을 특화해 A국에 수출하면 무역을 하지 않을 때에 비해 양국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위 <그림>에서 A국이 자동차만 10대 생산(a)하고 B국이 신발만 600켤레를 생산(b)해서 양국이 무역을 한다고 하자. 이때 A국이 자동차 2대를 수출하고 그 대신 B국으로부터 신발 300켤레를 수입한다면, A국은 자동차 8대와 신발 300켤레의 조합(a')을, B국은 자동차 2대와 신발 300켤레의 조합(b')을 소비할 수 있다. 즉 무역을 통해 양국은 무역 이전에는 생산할 수 없었던 재화량의 조합을 생산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갖게 되어 무역을 통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처럼 각국의 비교 우위 산업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 20세기 초의 경제학자 헉서는 국가 간 생산요소 부존량*의 상대적 차이가 비교 우위를 낳는다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각국은 타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풍부한 생산요소를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재화의 생산에 비교 우위를 갖는다. 즉 재화마다 각 생산요소들이 투입되는 비율이 다르기 마련인데, 어떤 재화 생산에 특정 생산요소가 집약적으로 사용된다면 그 생산요소를 다른 나라들에 비해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는 국가가 해당 재화의 생산에 비교 우위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국가가 자동차·선박 등 자본 집약재의 수출국이고 신발·의류 등 노동 집약재의 수입국이라면, 그 국가는 타국에 비해 자본은 상대적으로 풍부하고 노동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다.

각국의 비교 우위 산업은 국가 간 생산요소 부존량의 상대적 차이가 변화함에 따라 바뀔 수도 있다. 우리나라도 과거 경공업 위주의 노동 집약적 산업에서 자본 집약적인 중화학 공업, 최근의 지식 집약적인 IT 산업까지 주요 산업 및 수출품이 변화해 왔다. 이는 경제 성장에 따라 각 생산요소들의 부존 비율이 변화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비교 우위 산업이 변화해 왔기 때문이다.

- * 생산 가능 곡선: 한 경제의 이용 가능한 생산요소들을 가장 효율적으로 투입하여 생산할 수 있는 각 재화 생산량의 조합을 나타낸 선.
- * 생산요소: 재화를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노동, 자본 등의 투입 요소.
- * 생산요소 부존량: 한 경제 내에 존재하고 있는 생산요소의 양.

20. 밑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단계적인 순서에 따라 이론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 ② 권위자의 견해를 들어 현상의 원인을 설명하고 있다.
- ③ 질문을 던짐으로써 독자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 ④ 핵심 개념을 설명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⑤ 가상적 상황을 예로 들어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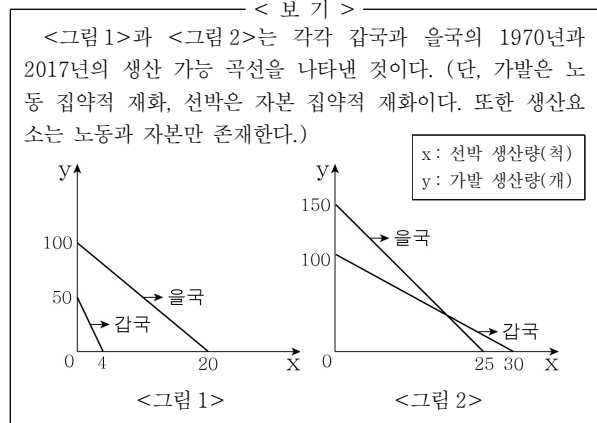
21. 밑글을 통해 답할 수 없는 질문은?

- ① 각국의 비교 우위 산업이 변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 ② 자발적인 무역이 한 나라의 각 재화 생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 ③ 어떤 재화 생산에 투입되는 각 생산요소의 비율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 ④ 자발적인 무역에서 어떤 재화가 수출품이 되고 어떤 재화가 수입품이 되는가?
- ⑤ 국가 간 생산요소 부존량의 상대적 차이가 자발적인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22.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B국의 신발 생산의 기회비용이 자국의 자동차 생산의 기회비용보다 크기 때문이다.
- ② B국의 신발 생산의 기회비용이 A국의 신발 생산의 기회비용보다 작기 때문이다.
- ③ B국의 신발 생산의 기회비용이 A국의 자동차 생산의 기회비용보다 작기 때문이다.
- ④ 이용 가능한 생산요소를 모두 투입했을 때, B국이 A국보다 신발 생산량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 ⑤ 이용 가능한 생산요소를 모두 투입했을 때, B국의 자동차 생산량보다 신발 생산량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23. 밑글에 근거하여 <보기>의 상황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1970년, 갑국이 선박을 2척 더 생산하기 위해서는 가발 생산을 25개 줄여야 했을 것이다.
- ② 1970년, 갑국은 을국에 비해 자본보다는 노동이 상대적으로 풍부했을 것이다.
- ③ 2017년, 선박 생산의 기회비용은 을국이 갑국에 비해 2배 이상 클 것이다.
- ④ 2017년, 을국은 갑국에 비해 노동의 부존 비율이 상대적으로 클 것이다.
- ⑤ 2017년, 갑국이 을국에 선박 1척을 수출하고 을국으로부터 가발 4개를 수입한다면, 무역 전에 비해 갑국이 소비할 수 있는 재화량의 조합이 늘어날 것이다.

[19~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국가들은 상대적 우위를 갖는 재화는 수출하고 상대적 열위를 갖는 재화는 수입하여 쌍방 간 이득을 취한다. 국제무역의 기본 모형인 리카르도 모형은 이러한 무역 원리를 알기 쉽게 설명해 준다.

리카르도에 ㉠ 따르면, 무역할 재화, 즉 교역재가 상대적 우위를 가지려면 생산비를 줄여야 한다. 생산비란 어떤 제품 1단위 생산에 필요한 노동시간, 즉 노동소요량을 시간당 임금과 곱한 값이므로 각국은 기술력을 ㉡ 높여 노동소요량을 줄이거나 값싼 노동력으로 임금을 줄임으로써 상대적 생산비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

한 나라에서 특정 재화가 상대국에 대해 상대적 생산비 우위를 갖는지 여부는 ‘상대적 임금’과 ‘상대적 생산성 우위’의 비교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여기서 상대적 임금이란 자국의 임금을 상대국의 임금으로 나눈 값이고, 상대적 생산성 우위란 상대국의 노동소요량을 자국의 노동소요량으로 나눈 값인데, 각국은 상대국에 대한 자국의 상대적 생산성 우위가 자국의 상대적 임금보다 높은 제품에 생산비 우위를 갖게 된다. 그리고 각국은 이렇게 상대적 생산비 우위를 갖는 제품을 상대국에 수출하게 된다.

그렇다면 ㉢ 이렇게 선택적 생산을 통한 무역이 양국 모두에게 정말 이득이 될까? 아래의 <표>를 바탕으로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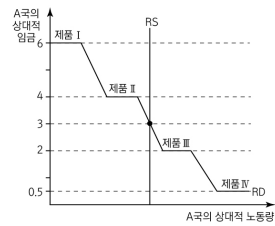
제품의 종류	A국의 단위당 노동소요량(a)	B국의 단위당 노동소요량(b)	A국의 상대적 생산성 우위(b/a)
I	1	6	6
II	3	12	4
III	6	12	2
IV	18	9	0.5

<표> A국과 B국의 노동소요량과 A국의 상대적 생산성 우위

제품의 종류와 무관하게 A국의 시간당 임금이 B국의 3배, 즉 A국의 상대적 임금이 3이라고 가정할 때, A국은 상대적 생산성 우위가 3보다 큰 제품I과 II는 수출하고 3보다 작은 제품III과 IV는 수입하고자 할 것이다. 이때 A국이 수입하는 제품III을 1단위 생산하는 데 B국은 12시간이 필요하다. 그런데 A국의 상대적 임금이 3이므로 B국의 12시간 노동이 A국에게는 4시간 노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결국 A국에서 4시간 노동을 위해 필요한 임금으로 B국에서 제품III을 1단위 생산할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현재 A국의 노동소요량인 6시간과 비교했을 때 제품III을 A국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B국에서 생산하는 것이 두 국가 모두에게 이득임을 알 수 있다. 같은 논리로 나머지 제품의 상대적 생산비 우위를 ㉣ 따져 보면 제품IV는 B국에서, 제품I과 II는 A국에서 생산하는 것이 두 국가 모두에게 이득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상대적 임금과 국제무역의 연관성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재화의 수요와 공급을 고려하여 시장가격이 정해지듯 노동량의 수요와 공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만약 B국에 대한 A국의 상대적 임금이 현재보다 높아진다면, A국에서 생산되는 재화들은 상대적으로 더 비싸질 것이다. 그러면 해당 재화에 대한 B국의 수요량은 감소하게 될 것이고, 그만큼 A국 노동에 대한 수요도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A국이 더 적은 양의 재화를 생산하는 동안 B국이 해당 재화를 생산하기 시작하면 A국의 노동 수요는 더 감소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A국의 상대적 임금이 3에서 3.99로 변했다고 가정해 보자.

<표>에서 A국이 수출할 제품의 품목은 변하지 않겠지만, A국에서 생산된 제품의 가격이 상승하여 제품에 대한 수요량도, A국의 노동에 대한 수요도 감소하게 될 것이다. 그러다 상대적 임금이 3.99에서 4.01로 약간 더 상승한다고 가정해 보자. 이제 제품Ⅱ를 생산하는 국가는 A국이 아니라 B국이 될 것이다. B국이 새로운 산업을 추가하는 동안 A국의 노동에 대한 수요는 이전 대비 급격하게 하락할 것이다. 이러한 A국의 변화를 그래프로 ㉔ 나타내면 <그림>과 같다. 노동에 대한 상대적 수요 곡선(RD)이 계단 형태를 띠는 것은 수출 제품의 품목



<그림>

은 그대로이나 상대적 임금의 증가로 인해 해당 제품에 대한 수요만 감소하는 경사 구간과, 상대적 임금의 증가가 결국 생산 제품의 변화로 이어져 제품의 생산에 필요한 노동 수요가 상대국으로 점차 이동하는 수평 구간이 번갈아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리고 노동의 상대적 공급 곡선(RS)이 수직 형태를 띠는 것은 임금이 변해도 A국 내에서 가용 가능한 노동량이 바로 변하기는 ㉔ 어렵기 때문이다. B국에 대한 A국의 상대적 임금은 RS와 RD의 교점에서 결정되며, RS가 좌우로 이동하면서 교점이 경사 구간에 형성되면 A국과 B국 중 한 나라에서, 수평 구간에서 생기면 A국과 B국 모두에서 그 구간에 해당하는 재화를 생산하게 된다.

이렇게 상대적 임금을 고려해 교역재를 정하더라도, **수송비**에 따라 그 품목은 달라질 수도 있다. 예를 들어 A국이 <표>의 제품Ⅲ을 수입하는 데 드는 단위당 수송비가 제품Ⅲ의 단위당 생산비와 동일하게 요구된다고 가정해 보자. B국에 대한 A국의 상대적 임금이 3일 때, 생산비만 고려한다면 B국의 12시간 노동은 A국의 4시간 노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수송비까지 고려한다면 결국 8시간 노동에 해당하는 것과 같아진다. 이 경우 현재 A국의 6시간과 비교했을 때 오히려 제품Ⅲ을 A국에서 생산하는 것이 더 유리해진다. 이처럼 상대적 임금을 고려해 무역재를 선정해도 수송비가 얼마냐에 따라 교역재는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소비재인 비교역재가 될 수도 있다.

19.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선택적 생산이 상대적 임금을 낮추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 ② 노동자의 임금이 교역재 선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③ 교역재와 비교역재의 생산비 산출 방법의 차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④ 수출국이 수입국보다 더 많은 이익을 얻게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 ⑤ 재화 생산에 필요한 노동의 공급이 노동의 수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임금이 일정할 때, 재화를 생산하는 노동시간을 줄이면 생산비가 낮아진다.
- ② 한 나라 안에서는 임금이 상승해도 가용 가능한 노동량이 즉각적으로 증가하기 어렵다.
- ③ 값싼 노동력으로 임금을 줄이더라도 노동소요량을 줄여야만 상대적 생산비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
- ④ 상대국보다 임금이 낮은 국가도 그보다 임금이 높은 상대국에서 재화를 수입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 ⑤ 한 국가의 상대국에 대한 상대적 임금이 특정 재화의 상대적 생산성 우위보다 낮으면 그 재화의 생산비도 상대국보다 낮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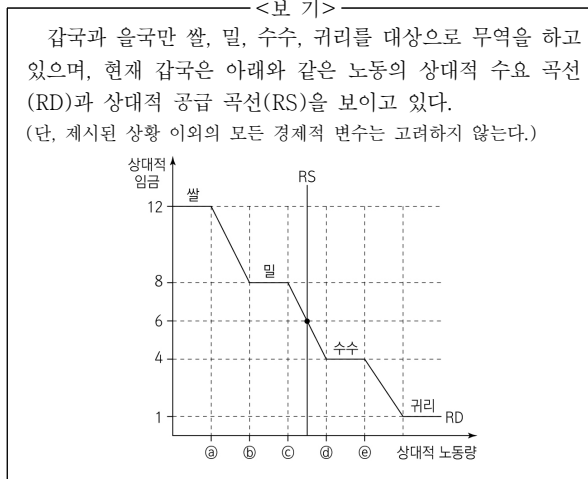
21.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사과와 바나나를 생산하기 위한 X국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은 2만 원, Y국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은 1만 원이다. 사과 1kg을 X국에서 생산하려면 4시간의 노동이, Y국에서 생산하려면 12시간의 노동이 필요하다. 그리고 바나나 1kg을 X국에서 생산하려면 6시간의 노동이, Y국에서 생산하려면 9시간의 노동이 필요하다.

- ① X국에서 사과 1kg을 생산하려면 8만 원의 생산비가, Y국에서 바나나 1kg을 생산하려면 9만 원의 생산비가 소요되겠군.
- ② X국이 기술력을 높여 바나나 1kg 생산에 필요한 노동시간을 4시간으로 줄인다면 바나나 생산에 있어서의 생산비 우위는 X국이 차지하게 되겠군.
- ③ Y국에 대한 X국의 상대적 임금을 고려할 때, Y국에서 사과 1kg을 생산하는 데 드는 노동시간이 X국의 입장에서는 6시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군.
- ④ 사과의 생산에 있어서 X국이 Y국에 대해 갖는 상대적 생산성 우위가 바나나의 생산에 있어서 X국이 Y국에 대해 갖는 상대적 생산성 우위보다 높게 나타나겠군.
- ⑤ X국과 Y국 모두, 사과와 바나나 중에서 상대국에 대한 자국의 상대적 생산성 우위가 2보다 큰 과일은 수출하고 2보다 작은 과일은 수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겠군.

22.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RS와 RD의 교점이 ㉔와 ㉕ 사이로 이동하더라도 쌀 생산비에 우위를 갖는 국가는 바뀌지 않겠군.
- ② RS와 RD의 교점이 ㉕와 ㉗ 사이로 이동할 경우 밀 생산을 위한 노동 수요의 일부가 을국에서 갑국으로 이동하겠군.
- ③ RS와 RD의 교점이 ㉗에 점점 가까워질수록 갑국에서 생산하는 밀에 대한 을국의 수요량은 점차 줄어들게 되겠군.
- ④ RS와 RD의 교점이 ㉔에 점점 가까워질수록 갑국이 생산하는 밀의 가격은 현재 대비 상대적으로 낮아지겠군.
- ⑤ RS와 RD의 교점이 ㉔와 ㉗ 사이에서 형성될 경우 갑국과 을국 모두에서 수수를 생산하게 되겠군.

23. [중증]를 고려했을 때, ㉔에 대한 답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선택적 생산을 통한 수출은 수송비가 자국의 생산비보다 적게 소요될 때에만 이익이 된다.
- ② 선택적 생산을 통한 수출은 자국의 수송비가 상대국의 수송비보다 더 적게 소요될 경우에만 이익이 된다.
- ③ 선택적 생산을 통한 수출은 수송비가 부과되더라도 상대국에 대한 자국의 상대적 임금이 변하지 않는 경우에만 이익이 된다.
- ④ 선택적 생산을 통한 수출은 수송비가 부과되었을 때에도 상대국에 대한 자국의 상대적 생산성 우위가 그대로 유지되어야만 이익이 된다.
- ⑤ 선택적 생산을 통한 수출은 자국의 생산비와 수송비를 모두 고려했을 때의 동일 임금 대비 노동시간이 상대국보다 적은 경우에만 이익이 된다.

24. 문맥상 ㉑~㉔의 단어와 가장 가까운 의미로 쓰인 것은?

- ① ㉑: 고인의 뜻에 따라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했다.
- ② ㉒: 그는 모두 함께 참여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 ③ ㉓: 나는 그에게 왜 책을 돌려주지 않느냐고 따졌다.
- ④ ㉔: 그들은 슬픈 감정을 나타내지 않으려고 애썼다.
- ⑤ ㉕: 어려운 가정 형편에도 그는 다른 사람을 돕는다.

◆ 18년 11월 고2 33~37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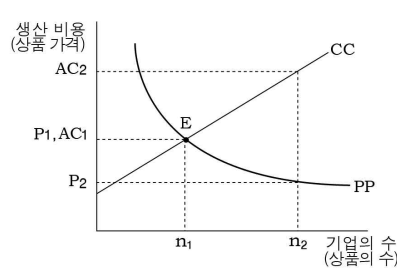
[33 ~ 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무역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고전적 무역 이론 중 비교우위론에서는 개별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노동 생산성 또는 보유 자원의 차이가 무역을 발생시킨다고 주장하였다. 일반적으로 각 나라는 상대적으로 더 유리한 자국의 산업에 집중하게 되는데 이를 특화라고 한다. 이때 특화된 자원이나 상품은 수출만 이루어지고, 자국이 보유하지 못한 자원이나 수입하는 것이 더 이득인 상품은 수입만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 이론에서는, 무역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역을 통해 해당 국가가 가지지 못하거나 상대적으로 덜 가진 상품을 간접 생산하여 이익을 얻기 위해서라고 보았다. 하지만 이러한 무역 이론은 서로 다른 산업 간의 무역은 설명 가능하지만, 동일한 산업에 속한 상품들이 서로 교환되는 산업 내 무역은 나타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오늘날의 무역 양상을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무역 양상을 설명하기 위해 나타난 신무역이론에서는 만약 두 국가에 각각 독점적 경쟁시장이 형성되어 있고, 그 시장에 '규모의 경제'가 존재할 경우 두 국가 간에는 산업 내 무역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 먼저 ㉠ 독점적 경쟁시장은 시장 내에 다수의 기업이 존재하며, 이들의 시장 진입과 퇴출이 자유롭다. 그리고 다수의 기업들이, 완전히 동일한 상품은 아니지만 서로 유사한 기능을 하면서도 질적으로 차별화된 상품을 생산한다. 예를 들어 자동차들은 기본적으로 기능은 동일하지만 자동차 산업에는 승용차, 트럭, 승합차 등 차별화된 상품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때 소비자들은 일반적으로 특정 상품에 대한 자신의 선호를 쉽게 바꾸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어서 해당 기업은 어느 정도 독점적인 지위를 가진다. 따라서 해당 기업은 제품 가격을 결정할 권한을 가질 수도 있다. 하지만 다수의 경쟁 기업이 존재하므로 다른 기업의 상품들은 해당 기업의 상품에 대해 어느 정도의 대체성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해당 기업의 시장 지배력은 불완전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규모의 경제'란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평균생산비용이 하락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평균생산비용이란 총생산비용을 총생산량으로 나눈 값을 의미한다. 상품을 생산하는 데에는 기본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초기 투자비용이 높기 때문에 기업은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평균생산비용을 낮출 수 있다. 하지만 시장의 크기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 내에서 기업의 수가 증가하면 각 기업의 규모의 경제 효과는 감소하게 된다.

<그림>은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독점적 경쟁시장을 가정하여, 동일 산업 내에 존재하는 기업의 수는 어떻게 결정되며,



<그림>

다. 또한 CC는 시장 내 기업의 평균생산비용곡선, PP는 시장 내 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의 가격곡선을 나타낸다. 이때 두 곡선이 교차하는 지점 E에서 균형점이 형성되며 이때 균형 기업의 수는 n_1 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시장의 크기가 정해져 있다는 것은 어떤 산업의 총수요량이 일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

그렇게 결정된 기업의 수를 통해 상품의 가격 및 생산량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의 X축은 기업의 수 혹은 상품의 수, Y축은 생산 비용 혹은 상품 가격을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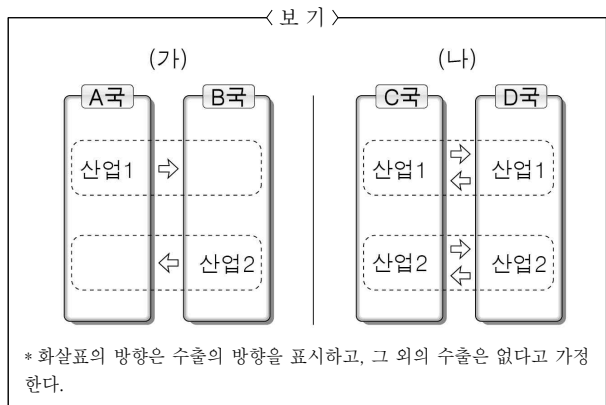
약 이 상황에서 기업의 수가 n_1 에서 n_2 로 증가하면 그 영향으로 일부 기업의 생산량은 감소하게 된다.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상황이므로 생산량 감소에 따라 기업들의 평균생산비용은 AC_1 에서 AC_2 로 증가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 경우 새로운 경쟁 기업의 진입으로 인해 기존 기업들의 독점력은 약화되어, 상품 가격은 P_1 에서 P_2 로 자연스럽게 하락하게 될 것이다. 결국 일부 기업들은 시장에서 퇴출되고, 이로 인해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의 다양성은 줄어들게 될 것이다.

신무역이론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산업 내 무역이라고 생각하였다. 먼저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이전에는 시장의 크기가 제한되어 있어 규모의 경제 효과를 제대로 살릴 수가 없었지만, 무역이 이루어지면서 ㉡ 시장의 크기가 확대되어 생산량 증가에 따른 평균생산비용의 감소 효과를 얻게 되는 것이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무역을 통해 경쟁 기업이 증가함으로써 상품 가격이 하락하게 되어 소비자의 후생이 증가하게 된다. 또한 기존 국내 기업의 상품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이 생산한 상품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상품 선택의 다양성이 증가하게 된다.

33. 밑글에서 언급한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생산량과 평균생산비용의 관계
- ② 규모의 경제가 적용되지 않는 산업의 예
- ③ 산업 내 무역이 소비자에게 끼치는 영향
- ④ 독점적 경쟁시장에서 생산되는 상품의 특성
- ⑤ 고전적 무역 이론인 비교우위론이 가지는 한계

34. 밑글을 참고할 때, <보기>의 (가)와 (나)에 나타난 무역 양상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와 달리 (나)에서는 특화된 상품이 아니더라도 수출이 가능하겠군.
- ② (가)와 달리 (나)에서는 동일한 산업 내에서도 수출이 발생할 수 있겠군.
- ③ (나)와 달리 (가)에서는 국가 간의 노동 생산성과 보유 자원의 차이가 없다면 무역이 발생하지 않겠군.
- ④ (나)와 달리 (가)에서는 해당 국가가 보유하지 못하거나 상대적으로 덜 가진 상품은 무역을 통해 간접 생산하겠군.
- ⑤ (나)와 달리 (가)에서는 완전히 동일한 상품은 아니지만 질적으로 차별화된 상품을 수출하여 이익을 얻는다고 할 수 있겠군.

35. 윗글의 ㉠과 <보기>의 [A], [B]를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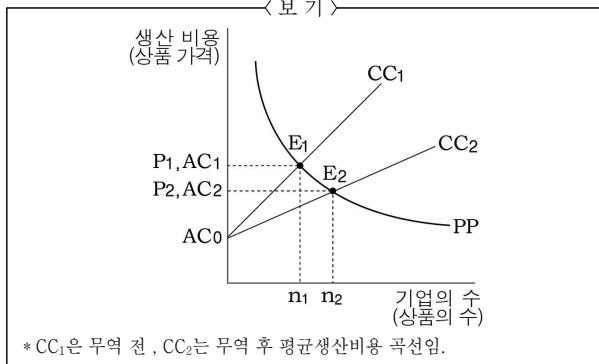
[A] 완전 경쟁시장은 상품의 공급자와 수요자가 다수이며, 완전히 동일한 상품이 거래되기 때문에 기업은 가격을 결정할 권한을 가질 수 없다. 또한 기업의 시장 진출입이 자유롭고, 공급자나 수요자들이 시장 정보에 관해서 완전히 알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B] 독점 시장은 하나의 공급자가 한 종류의 상품을 판매하는 시장의 형태를 말한다. 독점 시장에서 공급자는 이윤이 극대화되도록 생산량과 가격을 조절할 수 있다. 또한 시장을 지배하는 기업의 영향력으로 인해 다른 기업의 진입이 매우 어렵다.

- ① ㉠은 시장에 참여하는 기업의 수가 다수라는 점에서 [A]와 유사하지만, 판매되는 상품들 간의 차별화 정도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 ② ㉠은 연필, 볼펜, 만년필 등의 차별화된 상품이 존재하는 필기구 시장이, [A]는 한 종류의 동일한 쌀을 여러 가게에서 팔고 있는 쌀 시장이 각각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 ③ ㉠은 기업이 상품에 대해 독점력을 가진다는 점에서는 [B]와 유사하지만, 기업의 시장 지배력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 ④ ㉠에서 상품 가격은 차별화된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수에 영향을 받지만, [B]에서는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상품 가격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 ⑤ ㉠에서는 상품들이 대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경쟁 관계에 있지만, [B]에서는 다른 기업의 시장 진입이 쉽지 않아 경쟁 관계가 형성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36.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 ① 무역 후 기업의 수가 n_1 에서 n_2 로 바뀌게 되었다면 소비자의 후생은 증가했다고 볼 수 있겠군.
- ② CC_1 과 CC_2 가 모두 AC_0 에서 시작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초기 투자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군.
- ③ 균형점이 E_1 에서 E_2 로 바뀌었다면, 시장이 확대되어 무역 전보다 더 많은 기업이 시장에 진입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군.
- ④ 상품의 가격이 P_1 에서 무역 후 P_2 로 바뀌었다면 기업의 독점력이 약화되어 상품의 다양성이 줄어든 것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군.
- ⑤ 무역 후 균형점이 E_2 인 상태에서 시장의 크기 변화 없이 기업의 수가 n_2 보다 늘어났다면, 평균생산비용이 AC_2 보다 높아져 기업 중 일부는 퇴출될 가능성이 있겠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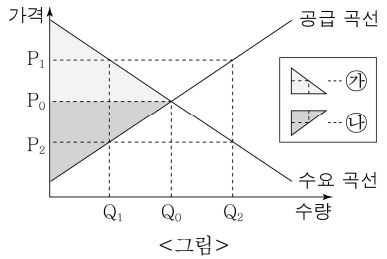
37. ㉡이 일어났을 때와 유사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상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상품의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 ② 국가가 보유한 자원이 단기간에 감소하였다.
- ③ 기업의 초기 투자비용이 갑자기 상승하였다.
- ④ 평균생산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였다.
- ⑤ 단기간에 한 국가의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38 ~ 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최근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여 국제 무역 분쟁이 발생하면서 관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관세란 수입되는 재화에 부과되는 조세로, 정부는 조세 수입을 늘리거나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세를 부과한다. 그런데 관세를 부과하면 국내 경기 및 국제 교역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관세가 국내 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알아야 한다. <그림>은 가격에 따른 수요량과 공급량의 변화를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여기서 수요 곡선은 재화의 가격에 따른 수요량의 변화를 나타내는데, 그래프에서 가격은 재화 1단위 추가 소비를 위한 소비자의 지불 용의 가격을 나타내기도 한다. 공급 곡선은 재화의 가격에 따른 공급량의 변화를 나타내는데, 그래프에서 가격은 재화 1단위 추가 생산을 위한 생산자의 판매 용의 가격을 나타내기도 한다.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르면 재화의 균형 가격은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P_0 에서 형성된다. 재화의 가격이 P_1 로 올라가면 수요량은 Q_1 로 줄어들고 공급량은 Q_2 로 증가하지만, 재화의 가격이 P_2 로 내려가면 수요량은 Q_2 로 증가하고 공급량은 Q_1 로 줄어든다.

이처럼 재화의 가격 변화로 수요량과 공급량이 달라지면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에도 변화가 생기게 된다. 여기서 잉여란 제품을 소비하거나 판매함으로써 얻는 이득으로, 소비자 잉여는 소비자가 어떤 재화를 구입할 때 지불할 용의가 있는 가격과 실제 지불한 가격의 차이이고, 생산자 잉여는 생산자가 어떤 재화를 판매할 때 실제 판매한 가격과 판매할 용의가 있는 가격의 차이이다. <그림>에서 수요 곡선과 실제 재화의 가격의 차이에 해당하는 ㉓는 소비자 잉여를, 실제 재화의 가격과 공급 곡선의 차이에 해당하는 ㉔는 생산자 잉여를 나타낸다. 만일 재화의 가격이 P_0 에서 P_1 로 올라가면 소비자 잉여는 줄어들고 생산자 잉여는 늘어나는 반면, 재화의 가격이 P_2 로 내려가면 소비자 잉여는 늘어나고 생산자 잉여는 줄어들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관세가 국내 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자. 밀가루 수입 전에 형성된 K국의 밀가루 가격이 500원/kg이고, 국제 시장에서 형성된 밀가루의 가격이 300원/kg이라고 가정해 보자. K국이 자유 무역을 통해 관세 없이 밀가루를 수입하면 국산 밀가루 가격은 수입 가격 수준인 300원/kg까지 내려가게 된다. 그 결과 국산 밀가루 공급량은 줄어들지만 오히려 수요량은 늘어나기 때문에, 국내 수요량에서 국내 공급량을 뺀 나머지 부분만큼 밀가루를 수입하게 된다. 밀가루 수입으로 국산 밀가루 가격이 하락하면 결과적으로 생산자 잉여가 감소하지만 소비자 잉여는 증가하게 된다. 증가한 소비자 잉여가 감소한 생산자 잉여보다 크기 때문에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총합인 사회적 잉여는 밀가루를 수입하기 전에 비해 커지게 된다.

그런데 K국이 수입 밀가루에 100원/kg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수입 밀가루의 국내 판매 가격은 400원/kg으로 올라가게 된다. 그렇게 되면 국산 밀가루 생산자는 관세 부과 전보다

100원/kg 오른 가격에 밀가루를 판매할 수 있으므로 국산 밀가루의 공급량이 늘어 관세를 부과하기 전보다 생산자 잉여가 증가하게 된다. 반대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올라가면 그만큼 수요량이 줄어들게 되므로 소비자 잉여는 감소하게 된다. 하지만 증가한 생산자 잉여가 감소한 소비자 잉여보다 작기 때문에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총합인 사회적 잉여는 수입 밀가루에 관세를 부과하기 전에 비해 작아지게 된다.

그런데 관세 정책이 장기화될 경우, 국내 경기가 침체에 빠질 수 있다. 예컨대 K국 정부가 국내 밀가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입 밀가루에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국내 밀가루 생산자의 이익을 늘려 자국의 밀가루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 하지만 높은 관세로 국내 밀가루 가격이 상승하면 밀가루를 원료로 하는 제품들의 가격이 줄줄이 상승하게 되어, 국내 소비자들은 밀가루를 이용하여 만든 제품들의 소비를 줄이게 된다. 이러한 과정이 장기화된다면 K국의 경기는 결국 침체에 빠질 수도 있다. 실제로 1930년대 국내 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시행된 각국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오히려 경제 대공황이 심화된 사례가 이를 잘 보여 주고 있다.

이렇게 볼 때 국내 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부과된 ① 관세는 사회적 잉여를 감소시키고, 해당 제품에 대한 국내 소비를 줄여줄게 한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다른 산업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과도한 관세는 국제 교역을 감소시켜 국제 무역 시장을 침체시킬 뿐만 아니라, 국제 무역 분쟁을 야기할 소지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대다수의 경제학자들은 과도한 관세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38.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상반된 두 입장을 제시한 후 이를 절충하고 있다.
- ② 문제 상황을 언급한 후 해결책을 구체화하고 있다.
- ③ 이론의 한계를 단계적인 순서에 따라 설명하고 있다.
- ④ 학설이 나타난 배경과 그 학문적 성과를 분석하고 있다.
- ⑤ 원리를 설명한 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이해를 돕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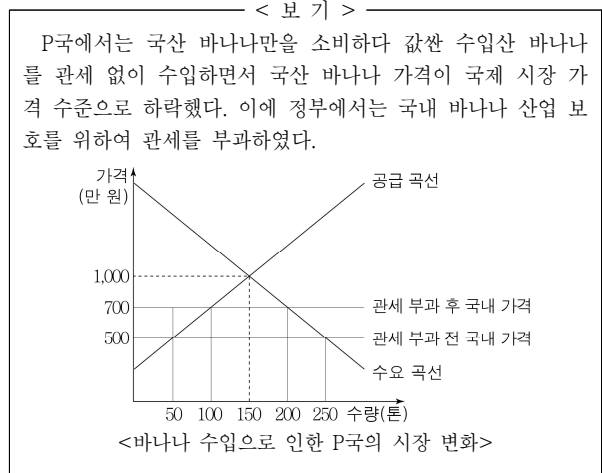
39.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소비자의 지불 용의 가격은 균형 가격보다 항상 높다.
- ② 균형 가격에서는 재화의 수요량과 공급량이 동일하다.
- ③ 원료의 가격은 이에 기반한 제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 ④ 관세는 국가 간의 무역 분쟁의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 ⑤ 대다수의 경제학자들은 과도한 관세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취한다.

40. ㉠의 이유로 적절한 것은?

- ① 소비자 잉여 감소분이 생산자 잉여 증가분과 같기 때문에
- ② 소비자 잉여 감소분이 생산자 잉여 증가분보다 크기 때문에
- ③ 소비자 잉여 증가분이 생산자 잉여 증가분보다 크기 때문에
- ④ 소비자 잉여 감소분이 생산자 잉여 감소분보다 작기 때문에
- ⑤ 소비자 잉여 증가분이 생산자 잉여 감소분보다 작기 때문에

41.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바나나를 수입하기 전 바나나의 국내 균형 가격은 톤당 1,000만 원이었다.
- ② 관세를 부과하기 이전에는 수입되는 바나나의 수량이 200톤이었다.
- ③ 관세를 부과하기 이전과 이후의 가격을 비교해 보니 톤당 200만 원만큼의 관세가 부과되었다.
- ④ 관세를 부과한 결과 국내 생산자는 바나나의 공급량을 50톤에서 100톤으로 늘리게 된다.
- ⑤ 관세를 부과한 결과 수입되는 바나나의 수량은 이전보다 50톤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한다.

42. 윗글의 '관세(A)'와 <보기>의 '수입 할당제(B)'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수입 할당제'는 일정 기간 특정 재화를 수입할 수 있는 양을 제한하여 제한된 할당량까지는 자유 무역 상태에서 수입하고 그 할당량이 채워지면 수입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비관세 정책이다. 수입 할당제는 수입되는 재화의 양을 제한함으로써 그 재화의 국내 가격을 자연적으로 상승시켜 국내 생산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 ① A는 수입품의 가격을 상승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겠군.
- ② B는 수량을 기준으로 수입되는 재화의 양을 제한하겠군.
- ③ A는 B와 달리 정책 시행 시의 혜택을 국내 생산자가 보겠군.
- ④ B는 A와 달리 수입품에 대한 정부의 조세 수입이 없겠군.
- ⑤ A와 B 모두 국제 무역 규모의 감소를 유발할 수 있겠군.

◆ 12년 3월 고2 39~41번

[39 ~ 4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국가 간의 경제 거래 가운데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거래는 국제무역이다. 각 나라의 정부는 무역 활동에 개입하지 않고 자유방임의 입장을 취할 수도 있고,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수입을 규제하거나 수출을 지원하는 등 무역에 개입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정부는 어떤 방법으로 수입을 규제할 수 있을까?

수입 규제 수단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 관세와 ㉡ 수입 수량 할당이다. 관세란 수입 상품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관세가 부과되면 해당 상품의 국내 가격이 상승하여 수요가 감소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수입량도 감소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농산물을 관세 없이 자유롭게 수입하다가 정부에서 농산물에 관세를 부과하였다고 하자. 그러면 수입 농산물의 국내 가격은 관세를 더한 만큼 높아져 소비자들의 수요량은 감소한다.

수입 수량 할당은 일정 기간의 수입량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자유무역에서는 국내 생산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부족한 만큼을 수입할 수 있다. 이때의 시장가격은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지점에서 형성되고 시장거래량은 수요량과 일치한다. 그런데 수입 수량을 제한할 경우에는 수입이 자유로운 경우보다 수입량이 감소하게 된다. 예를 들어 포도주의 국내 생산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생산량을 늘리거나 초과수요만큼 수입을 해야 한다. 그런데 국내 생산량에 변함이 없고 수입도 일정량만 할 수 있다면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 된다. 그러면 국내에서의 포도주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이것은 수요량 감소로 이어지게 된다.

수입 수량 할당이 적용되거나 관세가 부과되면 수입 상품의 국내 가격이 상승하면서 수입 상품에 대한 소비를 억제하는 한편 해당 품목의 국내 생산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이때 수입 상품의 가격 상승분은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수입이 되는 반면에 수입 수량을 할당하는 경우에는 수입업자의 이익이 된다.

한편 현실 경제에서는 관세를 인하고 수입 수량 할당을 완화하는 경우가 많다. 가계나 기업의 경우는 소득이 지출보다 많은 것이 바람직하지만 국가 경제에서는 무역수지가 균형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물론 단기적으로 보면 국제 거래에서도 흑자가 바람직하다. 수출이 잘되어 생산이 늘면 고용이 증가하고 소득이 증대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기적인 흑자는 국내 경기를 과열시키고 물가를 상승시킬 우려가 있고 거래 상대국과의 마찰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한 국가의 물가 안정과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무역수지가 균형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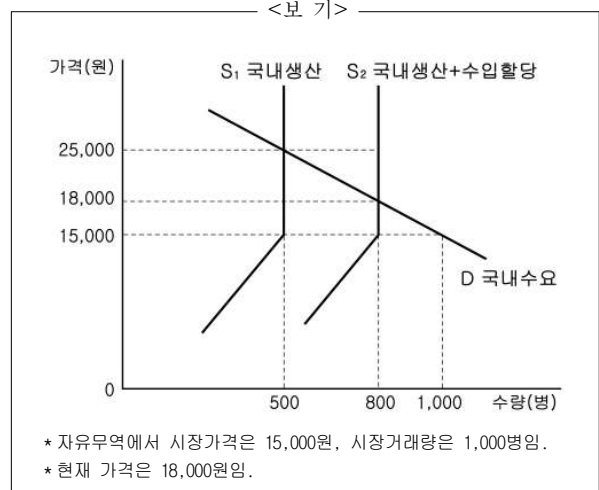
39. 위 글을 읽은 학생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정부가 수입을 규제하는 정책을 펼 경우에 수입 상품의 가격 상승은 국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영향을 끼치겠군.
- ② 정부가 수입을 규제하고 수출을 지원하는 정책을 늘린다면 국제 거래 상대국과의 마찰을 없앨 수 있겠군.
- ③ 국제 거래에서 장기적인 흑자를 기록한다면 국내 상품의 수출이 활발해지면서 물가가 안정되겠군.
- ④ 무역 활동 가운데 정부가 수출을 지원할 수 있는 품목은 미리 정해져 있겠군.
- ⑤ 수출에 대해서는 자유방임의 입장을 취하는 나라가 더 많겠군.

40. 위 글을 통해 ㉠과 ㉡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은 ㉡에 비해 수입 억제 효과가 크다.
- ② ㉡은 ㉠에 비해 수요량 감소 효과가 크다.
- ③ ㉡이 ㉠보다 현실 경제에서 자주 사용되는 방법이다.
- ④ ㉠과 ㉡ 모두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
- ⑤ ㉠과 ㉡ 모두 가격 상승에 따른 이익을 정부가 얻게 된다.

41. <보기>는 [A]에 제시된 포도주의 수요 및 공급에 따른 가격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포도주 가격이 25,000원이 되면 공급량은 현재보다 늘어난다.
- ② 포도주 수입 할당량을 줄인다면 S₂는 왼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 ③ 현재 포도주의 수입량은 가격에 상관없이 300명으로 한정되어 있다.
- ④ 포도주를 전혀 수입하지 않는다면 시장 가격이 25,000원에서 형성된다.
- ⑤ 포도주의 수요가 일정하다면 수입 할당량을 늘릴 경우 가격은 18,000원보다 하락한다.

- 출전: 정영규 저. 《경제학원론》

- 정답: 39.① 40.④ 41.①

◆ 24년 5월 고3 4~9번

[4~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자유 무역 협정은 특정 국가 간의 상호 무역 증진을 위해 상품의 이동을 자유화하는 협정이다. 이 협정의 근본적인 목적은 협정을 체결한 권역 내 국가, 즉 역내국들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역내국들은 관세를 비롯한 무역 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상호 간에 무역 특혜를 부여한다. 이로 인해 역내국과 역외국의 무역 구조가 변화되면서 무역 창출 효과, 무역 전환 효과, 무역 굴절 효과 등이 나타난다.

먼저, 무역 창출 효과는 자유 무역 협정의 체결로 인해 역내국 간에 새로운 무역이 발생하면서 상호 간 무역 이익이 발생하는 현상이다. 자유 무역 협정을 체결하여 역내국 간의 관세가 이전보다 낮아지면 역내국들은 자국에서 생산하는 상품을 상대적으로 저렴한 역내국의 동질 상품으로 대체하게 된다. 이로 인해 역내국들은 가격 경쟁력에서 비교 우위를 지닌 상품을 생산하는 데에 자본이나 노동력 등의 생산 요소를 집중하게 되면서 역내국의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증가한다. 결국 역내국들은 수출을 통해 무역 이익이 증가하고, 수입을 통해 역내국 소비자의 후생이 증가한다.

다음으로 무역 전환 효과는 한 국가가 기존에 수입하던 상품을 자유 무역 협정 체결 이후 역내국의 상품으로 대체하는 현상이다. 이는 역내국 상품이 역외국의 동질 상품보다 생산 비용이 높더라도 ㉠ 낮은 관세로 인해 가격 경쟁력에서 비교 우위가 생기는 경우에 발생한다. 이때 역내국의 관세 수입이 ㉡ 줄어 경제적 후생이 감소될 수 있으므로 자유 무역 협정으로 얻는 무역 이익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역 전환 효과보다 무역 창출 효과가 더 커야 한다.

마지막으로 무역 굴절 효과는 역내국 간의 무역 특혜를 이용하여 역외국이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상품을 역내국에 우회 수출하는 현상이다. 이는 자유 무역 협정에서 역내국들이 역외국에 서로 다른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허용하기 때문에 나타난다. 즉 역외국이 자국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역내국에 바로 수출하던 상품을, 자국에 낮은 관세를 부과하는 역내국을 거쳐 수출함으로써 이전보다 더 많은 이익을 얻는 것이다.

(나)

자유 무역 협정에서 원산지는 상품의 관세 혜택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모든 자유 무역 협정에서는 상품의 원산지를 판정하는 기준인 원산지 결정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역내국은 이 기준에 ㉢ 따라 수입 상품의 원산지를 판정해서 원산지가 역내인 경우에만 관세 혜택을 부여한다.

일반적으로 역내국이 수입 상품의 원산지를 판정할 때는 원산지 결정 기준의 기본 원칙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원산지 결정 기준의 기본 원칙에는 역내 가공 원칙과 충분 가공 원칙 등이 있는데,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역내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역내 가공 원칙이란 상품의 가공 공정이 역내에서 중단 없이 수행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상품의 가공 공정의 일부가 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 원칙상 역내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충분 가공 원칙이란 상품의 실질이 변형될 만큼의 충분한 공정을 수행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에 따라 협정에서는 조립, 건조, 분쇄 등 상품의 실질에 변화를 주지 못하는 단순한 공정을 별도로 정하고 해당 공정만으로 가공한 상품은 역내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상품이 기본 원칙을 충족하였다면, 다음으로 품목별 원산지 기준에 따라 상품의 원산지를 검토한다. 품목별 원산지 기준은 역외에서 생산된 재료의 사용 여부에 따라 완전 생산 기준과 실질 변형 기준으로 ㉣ 나눌 수 있다. 완전 생산 기준은 상품이 역내에서 생산된 재료만을 사용하여 생산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이를 충족하면 역내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받는다. 그렇지 않고 역외에서 생산된 재료를 사용하여 가공한 상품의 경우 실질 변형 기준을 적용하여 원산지를 판정해야 한다. 실질 변형 기준에는 세번 변경 기준, 가공 공정 기준 등이 있다.

세번 변경 기준은 국제 품목 분류 체계에 따라 상품에 부여되는 품목 번호인 HS 코드를 활용하는 기준이다. 역외에서 생산된 재료와 이를 사용해 역내에서 최종적으로 가공된 상품의 HS 코드가 서로 다르면, 재료의 실질적 특성이 변형된 상품으로 ㉤ 보고 해당 상품을 역내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한다. 가공 공정 기준은 섬유, 석유 화학 등과 같은 특정 분야 상품의 원산지를 판정할 때 적용되는 기준이다. 역외에서 생산된 재료를 사용하여 상품을 가공하는 전체 공정 중, 협정에서 재료의 실질적 특성이 변형된다고 보는 공정 이상을 역내에서 수행하면 해당 상품을 역내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한다.

이러한 원산지 결정 기준은 각 협정별로 산업 보호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품목마다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역내국은 원산지 결정 기준을 효과적으로 운용하면 무역 창출 효과를 보장받을 수 있고, ㉦ 무역 굴절 효과 등과 같은 자유 무역 협정의 부정적 효과를 방지할 수 있다.

4.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중심 화제에 대한 상반된 입장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절충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 ② (가)는 중심 화제와 관련된 하나의 사례를 중심으로 다양한 이론을 시대순으로 나열하고 있다.
- ③ (나)는 중심 화제를 하위 유형으로 분류하고 유형별로 장단점을 비교하고 있다.
- ④ (나)는 중심 화제와 관련된 개념들을 제시한 후 각각의 특징들을 설명하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중심 화제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효과를 소개하고, 각각의 효과가 안고 있는 한계점을 지적하고 있다.

5. 밑줄의 ‘자유 무역 협정’에 대해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수입 상품의 원산지를 판정하기 위해 원산지 결정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 ② 원산지 결정 기준은 산업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협정마다 동일하게 운용된다.
- ③ 역내국들이 역외국의 상품에 대해 서로 다른 관세를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 ④ 역내국 간의 상품의 이동을 자유화하여 역내국들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 ⑤ 기존에 존재하던 무역 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방식을 통해 역내국 간 무역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

※ 다음은 뒷글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학습지의 일부이다. 6 ~ 7번의 물음에 답하시오.

수입 상품의 생산 비용에 대하여 100%의 관세를 부과하는 갑국은 병국에서 나일론 실을 수입하고 있었다. 갑국-을국 간에 모든 상품의 관세를 철폐하는 자유 무역 협정이 체결되면서 ㉗ 세 국가 간의 무역 구조의 변화가 발생하였다. 이후 갑국은 국내에서 스타킹을 제조하기 위해 협정 체결 기간 을국에서 수입한 나일론 실(HS 5402.44)을 제직 공정으로 직물로 만들었으며, 병국으로부터 수입한 스판덱스 실(HS 5402.31)로 재단 및 봉제 공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자국의 염료로 염색한 스타킹을 생산하였다. ㉘ 갑국은 생산한 스타킹에 대해 을국에서 관세 혜택을 받았다. (단, 세 국가는 동질의 상품을 생산하며, 제시된 조건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활동 1] 다음은 ㉗를 정리한 표이다. 이를 참고하여 ㉗로 나타나는 경제적 효과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갑국		을국		병국
	나일론 실	염료	나일론 실	염료	나일론 실
생산 비용	25	50	15	60	10
생산량 변화	감소	증가	증가	감소	감소

[활동 2] 다음은 <갑-을 자유 무역 협정>의 원산지 결정 기준의 일부이다. ㉙를 고려하여 을국의 입장에서 스타킹의 원산지를 판정해 보자.

제1장 기본 원칙

1. 상품의 가공은 역내에서 중단 없이 충족되어야 함.
2. 상품은 건조, 분쇄, 조립의 공정만으로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 되지 않음.

제2장 품목별 원산지 기준

1. 품목 분류

품목	HS 코드	상품
섬유	HS 6115.21	스타킹

2. '섬유의 상품'은 제2장의 3과 4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원산지로 인정함.
3. 다른 HS 코드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4. 역내국 내에서 재단 및 봉제 공정 이상이 수행된 것.

6. 뒷글을 읽은 학생이 '활동 1'에 대해 보일 수 있는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갑국에서 나일론 실과 염료의 생산량이 변화한 것은 갑국이 비교 우위를 지닌 상품에 생산 요소를 집중했기 때문이겠군.
- ② 을국에서 나일론 실의 생산량이 증가한 것은 역내국 간의 무역 창출 효과가 발생했기 때문이겠군.
- ③ 을국에서 염료의 생산량이 감소한 것은 자국에서 생산하던 염료를 역내국의 동질 상품으로 대체했기 때문이겠군.
- ④ 을국에서 나일론 실의 생산량이 증가하고 병국에서는 감소한 것은 낮아진 관세로 인해 갑국에 역내국 상품이 역외국 상품보다 가격 경쟁력에서 비교 우위가 생겼기 때문이겠군.
- ⑤ 병국보다 을국의 나일론 실이 생산 비용이 높지만 을국의 생산량이 증가한 것은 갑국이 역외국으로부터 얻는 관세 수입이 역내국과의 무역 창출 효과로 얻는 이익보다 컸기 때문이겠군.

7. '활동 2'에 참여한 학생의 대답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스타킹의 가공 공정이 갑국 내에서 중단 없이 수행되었으므로 역내 가공 원칙을 충족하고 있군.
- ② 스타킹은 협정에서 별도로 정한 단순한 공정으로 가공한 것이 아니므로 충분 가공 원칙을 충족하고 있군.
- ③ 스타킹은 역내에서 완전하게 생산된 재료만을 사용하여 가공된 것이 아니므로 완전 생산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군.
- ④ 스타킹과 나일론 실의 HS 코드가 서로 다르므로 세번 변경 기준을 충족하고 있군.
- ⑤ 스타킹은 스판덱스 실을 사용하여 협정에서 규정한 재단 및 봉제 공정 이상을 수행한 상품이므로 가공 공정 기준을 충족하고 있군.

8. (가)와 (나)를 참고하여 ㉙의 이유를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역내 가공 원칙에 의해 수입 상품의 원산지가 역외국임을 확인하여 역외국이 우회 수출로 얻기를 기대하는 관세 이익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
- ② 실질 변형 기준을 적용하면 역외에서 생산된 재료를 사용하여 가공한 역외국의 상품이 역내국으로 수입되어 역외국이 무역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 ③ 역외국의 상품에 높은 관세를 부여하던 역내국이 원산지 결정 기준에 따라 해당 상품을 역내 원산지로 인정하면 관세 수입이 이전보다 크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 ④ 역외국이 자국의 상품을 원산지 결정 기준에 따라 역내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받아서 상대적으로 자국에 낮은 관세를 부과하는 역내국으로 수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 ⑤ 역외국이 자국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역내국을 거쳐 자국에 낮은 관세를 부과하는 역내국으로 수출하여 얻으려는 무역 이익을 원산지 결정 기준에 따라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9. 문맥상 ㉘ ~ ㉚와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㉘: 저조(低調)한
- ② ㉙: 감소(減少)하여
- ③ ㉚: 의거(依據)하여
- ④ ㉛: 구분(區分)할
- ⑤ ㉜: 간주(看做)하고

- 출전: 조만희 저. 《원산지규정과 자유무역협정》

- 정답: 4.④ 5.② 6.⑤ 7.④ 8.① 9.①